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서울시 성북구에는 ‘성북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지역을 빛낸 인물과 사업을 기리기 위해 지역 사회 발전, 선행 봉사, 미풍양속, 문화 체육, 모범 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구청 건물 내부에 ‘성북 명예의 전당’이라는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2017년 ‘성북 명예의 전당’ 문화 예술 분야에 ‘공유 성북 원탁회의’라는 지역 문화 예술 네트워크 단체가 선정된 것은, 그 동안 명예의 전당 현액이 주로 개인의 몫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약 150개 단체와 300여 명이 이상이 참여해 지난 4년 여 동안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공유 성북 원탁회의’를 아시나요?

‘공유 성북 원탁회의’는 2014년 2월 25일 14개 단체 27명으로 첫 모임을 한 이래 지금까지 40회의 전체 모임을 가졌다. 이 네트워크의 강점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문화 기획자와 마을 활동가 등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지역 사회의 현안과 의제를 다루는 등 문화 예술의 개별적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 공유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꾸준히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에는 운영 내규를 마련하면서 ‘자율성, 민주성, 연대성,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운영 원리를 제시했고, 공동운영위원장 2인과 25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유 성북 원탁회의’의 특징은 운영위원 및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고 운영위원 중에서 공동 위원장 1인은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1인은 ‘사다리타기’로 선출한다. 장난처럼 보이는 이 선출 방식은 내부적으로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투표로 선출된 위원장보다도 더 찬사를 받는다. 매년 새로운 공동 운영위원장을 2인씩 선출했지만 한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한편으로 ‘공유 성북 원탁회의’는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실현하는 무대이다. 매일 1회 전체 모임을 기점으로써 기존 구성원과 새로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 대면의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초기에는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매번 반복되는 자기소개 시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공통의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동시에 전체 모임의 자리는 다양한 입장과 아이디어, 축하와 파티 등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 사회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충격에 가깝다. 주로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단체들, 예를 들면 장르 중심의 ‘협회들’이 각각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탈장르와 융합, 문화 예술 생태계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등장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축적했던 네트워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낯설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유 성북 원탁회의’는 지역문화재단인 성북 문화재단과 협치 파트너가 되어 정책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기획사 중심의 지역 축제 행사를 넘어 축제 민간 사무국 구성이나 민관 축제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결합하

고 있다. 또한 공유 성북 원탁회의에서 출발해서 권역별 예술마을 만들기 활동과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잠신힌하면서도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실험은 어쩌면 한시적일지 모르나. 그럼에도 지방 본권이 대두하는 이 시점에 ‘공유 성북 원탁회의’는 매우 중요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개헌 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핵심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전환이다. 새로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개헌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지역 사회의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일 것이다.

‘공유 성북 원탁회의’는 단단한 조직이 라기보다는 유연한 플랫폼에 가깝다.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내적 완결형이 아니라 외부 연결과 공유, 연대와 확장을 지향한다. 최근에는 문화 예술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가장 작은 단위원 동네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드러나는 골목과 시장에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시간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지표나 숫자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이야기와 웃음이 꽃피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종교칼럼



중현
화순 용암사 주지스님

새벽 예불을 하려고 법당에 들어가니 법당의 초파일 연등 불이 켜지질 않는다. 새벽 4시가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자동으로 불이 꺼졌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불이 들어와야 할 시간인데 들어오질 않는다.

“저것들이 왜 꺼리지?” 단자함을 열어 보고, 타이머를 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 결국 포기했다. 어둔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 연등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깊은 침묵에 빠져 있다. 따지고 보면 LED등을 이쁘게 장식한 것에 불과한데 살아 숨쉬는 생물(生物)같다. 한낱 대상에 불과한 것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요즘 한창 미투운동의 집중포화를 맞

‘재하’ 같은 남자

고 있는 사람들 역시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권력은 사람을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가까이 있을수록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은 떨어진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힘없는 여성들은 한낱 대상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평소에 아무런 저항도 없던 것들의 반란, 그러나 성적 차별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일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광범한 일상 속에서 권력의 가장자리에 겨우겨우 자리하고 있는 나같은 남자 역시 성적 차별의 잠재적 가해자에 속한다.

최근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청춘을 위한 힐링 영화로 입소문 나면서 조용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여주인공이 영화를 끌어가는 모양새이지만, 여주인공 ‘혜원’의 어린 친 친구인 ‘재하’라는 인물도 영화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하’는 이 시대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의 입장에서 보기에 몹시 수긍하기 힘든 캐릭터다. 청춘의 날따라 등장하니 당연히 둘 사이에 씬을 맺는 사람 씬을 달 듯 말 듯하다가 만다. ‘재하’는 남

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친구. 혜원이 원할 때, 혜원이 원하는 방식대로, 혜원의 옆에 있어주는, 혜원이 바라는 친구의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수행한다. 많은 여성들이 바라지만 정작 남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역할이다. ‘재하’는 ‘혜원’이 필요로 하는 딱 그 만큼만 ‘혜원’의 삶에 들어온다.

이 사회의 모든 남자들이 ‘재하’처럼만 처신한다면 미투운동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하’라는 인물은 감독이 창조한 영화 속 인물이다. 그러나 감독의 의도와 무관하게 ‘재하’에게서 자비를 뭉소 실천하며 보살의 길을 걷는 수행자의 모습이 배어 나온다.

자비(慈悲)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자(慈)는 기쁨을 베푸는 것이며, 비(悲)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비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진실되고 순수한 우정이며,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자애로움같은 것이다.

“모든 생명 있는 자여, 행복하여라, 평안하여라, 인력하여라”(쌍옷따니까야, 145)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자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나는 만인의 벗이며, 만인의 동료다. 모든 생명 있는 것에게 정을 느끼는 사람이다.”(테라기타, 648)는 말에서 알 수 있

듯, 불교의 수행자는 ‘모든 생명있는 것들의 친구’이며, 자비는 인간이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금욕의 길을 걸으며 힘든 고행을 감수해야만 수행자인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불침주야 옹양정진해야만 수행자가 아니다. 불교의 보살은 자비를 실천하는 자이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든 수행자다.

‘재하’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비취지는 것은 자비의 실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성적 욕망은 생물학적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달리 매우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들의 사랑은 남성 중심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왜곡되고 변형된 채 고착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린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야 할지도 모른다.

고장난 연등은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다. 법당에 들어가 때마다 불 꺼진 연등은 내게 묻는다. ‘과연 너는 누군가의 재하가 되기 위해서 한 순간이라도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있는가?’

社說

민주당 ‘원팀 경선’ 운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더불어민주당의 ‘원팀(One Team) 경선’ 운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네거티브 없는 공정선거를 다짐하며 원팀 운동에 합의했다. 원팀 운동의 중심에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예비후보가 있으며 일부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정책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선거법 지키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발로 뛰는 선거 등 5대 원칙에 합의하고 경선 통과자에게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선거를 돕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사례로 환영할 일이다.

원팀 경선 운동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시작됐다. 부산시장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원

팀 경선 운동을 도입한 것이다.

원팀 경선 운동은 울산·제주·경기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원팀 경선 운동은 당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장 경선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일부 후보들이 동침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도 속속 원팀 경선 운동에 동참해 정책과 비전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선거는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란 인식이 강해 후보마다 경선에 모든 걸 걸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 한순간에 모래성으로 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팀 경선 운동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런 속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과도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에도 이 같은 운동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올 비엔날레, 예술로 승화된 5·18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담긴 가운데 오는 9월7일 개막하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비엔날레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면되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역사성을 담은 작품들이 대거 선보이고, 국가 권력 등 목격할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40개국 153명의 작가가 참여해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7개 주제전을 꾸리게 된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이다.

‘GB(광주비엔날레)커미션’은 민주·인권·평화로 대변되는 광주 정신을 구현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영국의 설치미술 작가인 ‘마이크 넬슨’이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중 하나인 옛 국군병원을

모티프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프랑스의 ‘카데르 아이타’는 5·18 생존자를 만나 1980년 현장의 광주시민과 오늘날 현대인을 잇는 조각을 제작한다. 또 한국의 젊은 작가들도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흐름을 작품에 담을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긴장이 완화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북한미술전도 열린다. 출품작들은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조선화 20여 점으로 대부분이 대형 집체화인데, 북한 미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전시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여느 축제와 달리 5·18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광주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유엔 자문기구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세계 156개국 국민 행복도를 조사해 발표한 ‘2018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57위를 기록했다. SDSN은 국내총생산·기대수명·사회적 지원·선택의 자유·부패에 대한 인식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1위는 핀란드가 차지했고, 노르웨이·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다.

참고 어둡고 축축하고 생기 없는 작은 나라의 국민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 세상 어딘가에 평범한 재능과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다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부유하고 평화롭고 화목하고 진보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이곳엔 신뢰·검소·평등이 사회 전반에 고루 퍼져 있다.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더 적을 때 사회는 참 평등을 이룬다’는 유토피아적 몽상을 현실로 바꿔 주민의 90% 정도가 거의 동일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행복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신뢰다. 한 사회에 신뢰가 있으면 행정 절차가 간소해지고 기업 간 거래 비용이 줄어 효율적이다. 분쟁에 따

른 소송엔 돈이 들지만 억수는 공짜니까.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찌지 모른다는 걱정을 늘 하는 사회는 얼마나 불편한가. 북유럽 사람들은 느끼는 행복의 토대는 복지 제도에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만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나·성별·재산·종교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같은 기회와 같은 안전망을 누린다는 사실은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한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불평등은 부유층과 빈곤층에 똑같이 스트레스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탐욕이나 시기심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중독·체념 등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며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데다 거액의 뇌물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뒤레 ‘정치 보복’이라며 큰소리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나라에 빼앗긴 죄 무거운데,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유재관 편집부장·부국장 jkyou@

기 고



정명숙
화이트큐브갤러리 디렉터&미술평론가

미학 미술사학을 공부하면서 이 매력적인 학문을 풀어헤쳐 보는 도구로 평론을 쓰고 강의를 했었지만, 결국 갤러리 공간을 갖는 것이 나의 최고 정점이 아니었나 싶다. 왜냐하면 내 안에 늘 갤러리 공간을 갈망하였으니...

2009년에 브라이언 오 도허티(Brian O Doherty)의 ‘Inside the White Cube-갤러리 공간의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접하고는 갤러리 명칭을 영국에 ‘화이트큐브’ 갤러리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이트큐브갤러리라 정해놓았다. 그리고 2017년 6월 화이트큐브갤러리를 광주시 마일동에 개관했다.

갤러리의 사전적 의미는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라고 돼 있다. 갤러리의 기원을 살펴보면 르네상스시대 저택이나 왕궁에서 좁고 긴 방 모양으로 된

갤러리 단상

장소를 주로 휴게실이나 미술품 전시장으로 사용했다. 영국에서 갤러리는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시대에 롱 갤러리(long gallery)라 했으며, 화랑을 뜻하는 아트 갤러리라는 현대 용어는 여기에서 비롯됐다.

아트 갤러리를 오 도허티는 ‘하얀 입방체’라 하였고, 이 공간 안에서 예술적 이데올로기가 생성됨을 글로 나열한다.

“외부 빛이 차단된 하얀 벽체에 미술품은 전시되며, 중세 교회의 건축물들에게 적용된 엄격한 법칙 뒤에 숨은 기본적인 원리는-배깅 세계가 갤러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성전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눈과 함께 관람자는 하얀 입방체 안으로 들어가면 떠돌거나 웃거나 거짓말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잠잘 수 없다. 정신의 눈으로 예술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를 만드는 숭고한 장소인 것이다.

예술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 자유로운 상태이며 전사라는 영원성 속에서 존재한다. 시간과 순수한 형식에 대한 영원성과 초월성의 신화를 지지하는 것이 갤러리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현대 미술의 역사는 갤러리 공간에서 관리자 인식 방식의 변화와 관련되며, 이상적인 갤러리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방해하

는 모든 단서들을 예술 작품에서 제거하며, 이 공간 안에서는 어떠한 사물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흰 벽을 사용하는 전시 방식은 모더니즘의 산물이며 화이트 큐브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화이트 큐브는 모더니즘의 보수성과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전시 공간에서 예술과 현실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관객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전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즉 갤러리는 예술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장소적 공간역할에서 관람자가 소통하고 즐기며 문화적 행복을 느끼는 장소-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가 된 것이다.

그런데 갤러리 공간을 행복한 문화적 공간 창출로 만들려면 갤러리 관계자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투자가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지만, 물질이 투입되는 일들은 개인이 사재로 운영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물질의 한계 때문에 문화사업을 쉽게 할 수도 없고 설령 시작한다손 치더라도 장기적 지속되기도 힘들다.

자신이 나에게 물어온다. 왜 돈 안 되는 일인 갤러리를 하느냐고. 나는 우아하고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다 지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사 회 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